

신임회장에 金一赫교수 선출  
대한약학회

대한약학회(회장 정원근)는 제39대 회장에 金一赫교수(중앙대)를 선출했다. 우편투표방식으로 행해진 이번 선거는 지난 9월22일까지 학회사무실에 도착한 투표용지에 한해 23일 개표한 결과 김교수가 차기 학회회장으로 당선됐다.

지난 9월20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평의원회에서 한병훈교수(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와 함께 후보로 지명된 김교수는 그동안 학계, 연구소 등 평의원들을 대상으로 학회발전방향을 제시하며 경합을 벌여왔다.

김 차기회장은 오는 95년1월부터 2년간 대한약학회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멀티워크스테이션 시제품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컴퓨터연구단(정보통신연구소)은 지난 90년 7월부터 4년간에 걸쳐 총1백93억원을 투입, 음성과 펜입력으로 동작할 수 있는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인 콤비스테이션의 시제품을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멀티미디어 워크스테이션은 다자간 영상회의 기능을 제공하는 멀티

미디어 확장운영체제와 펜과 사람음성으로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을 탑재했다.

특히 멀티미디어 운영체제는 상대방의 음성과 얼굴을 동시에 보고 들으면서 다자간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 앞으로 초고속 정보통신망 등에서 가장 많이 이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국산주전산기인 타이컴과 클라이언트-서버 형태로 접속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외에 일반책을 CD-ROM에 수록한 전자도서와, 전자도서를 자동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됐다. 이 제품을 실용화하는 95년이면 제품가격이 5천에서 8천달러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무, 교육, 오락용 단말기는 물론 영화·음악이 편집 및 개발 시스템외에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단말기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회명칭 개칭

한국소방학회

한국소방학회(회장 李允容)는 최근 학회명칭을 한국 화재·소방학회로 개칭했다.

동학회는 화재 관련학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분야와의 학술 및 정보

의 광범위한 상호교류를 위하여 이사회 및 정기총회의 결의에 따라 내부부의 승인을 거쳐 학회명을 바꾸게 된 것이다.

재료강도 심포지엄

대한금속학회

대한금속학회(회장 나형용)는 지난 10월7일 제주대학교에서 「제8회 재료강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홍순익교수(국민대)의 「고용체합금에서 Slip mode에 미치는 합금원소의 영향」과 L.M.Ma교수(Academica Sinica, China)의 「Hydrogen Embrittlement Tendency for EB-Welded Metal of Precipitate Strengthened Austenitic Steel」 등 초청강연과 함께 총3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정밀기계기술강습회

대한기계학회

대한기계학회(회장 민만기)는 지난 9월29일~30일 양일간 서울대학교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에서 「정밀기계기술강습회」를 개최했다.

산업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강습회에서는 앞에서 유량측정의 기본이론과 응용기술부문에 대하여 백중승박

사(한국표준과학원 역학연구부장) 등 7명의 강사가 강의를 했다.

한편 동학회는 오는 11월4일~5일 양일간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재료 및 파괴부문, 고체역학부문, 열 및 유체공학부문, 동력학 및 제어부문, 에너지 및 동력공학부문, 생산 및 설계공학부문 등 6개 부문으로 나뉘어 개최될 예정이다.

추계학술대회 개최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한국소음진동공학회(회장 박철희)는 오는 11월18일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동학술대회는 소음진동을 주제로 한 학술논문, 기술논문, 연구사례, 신기술소개, 연구동향, 연구예보기술 등을 내용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고효율 저가태양열온수기 개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연형 태양열 연구팀(연구책임자 강용혁 선임연구원)은 국내 최초로 밀폐형 히이트파이프식 집열기를 이용한 고효율 저가태양열 온수기 개발에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된 태양열온수기는 밀폐형 히이트 파이프식 집열기로 태양열을 상변화 열교환방식으로 축열을 하며, 집열관의 용접부위를 완전히 제거하여 고진공 상변화에 따른 불량률을 제로화시켰다.

또한 태양열 온수기 본체 개발은 물론 생산설비의 설계, 제작 및 생산공정을 완료함으로써 방습과 보온성이 뛰어난 집열기 박스설계 및 제작, 열매체의 고진공 상변화 열교환기 설계, 축열조 제작공정 및 금형설계, 열매체판 고진공 기기설계 및 마감기술 등이 확보되었다.

설계에서 생산까지 전과정 개발에 성공해 상품화된 태양열 온수기는 기존 자연대류형 태양열 온수기에 비해 제작공정이 단순하고 설치작업이 간단하여 경제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상변화

열전달방식을 채택하여 고효율유지는 물론 불량률을 최소화하여 관리보수비가 거의 들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한편 에너지기술연구소는 태양열 온수기 및 제작기술에 대해 4개국의 국제특허를 비롯하여 국내에서는 특허 1건, 실용신안5건, 의장등록2건을 출원하였고 현재 시판을 위한 형식승인을 얻어 대량생산에 들어갔다.

### 버퍼런기술 국제대회

생산기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원장 김영욱)은 오는 11월21일~23일 3일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정밀표면사상기술과 버퍼런기술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국가기술경쟁력시대를 맞이하여 생산기술의 국제화합각을 국내기술자에게 전달하

기 위해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버(burr) 관련 기술의 권위자인 L.K.Gillespie(Allied Sinal Aerospace)를 비롯 D.Dornfeld교수(U.C. Berkeley), 일본의 표면사상기술의 전문가인 N.Kinoita씨(Kinosita연구소), Koyo Takazawa교수(Kanazawa 대학) 등 이분야 전문가들의 특별강연이 있게 된다.

동회의는 통상적인 발표자 중심의 학술회의가 아니라 중요한 주제별로 전문가가 해설(구체적 사례 및 기술개선 내용)을 하며 참가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정보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루어질 예정이다.

회의주제로는 일반 기계가공 부품 및 정부품(자동차의 Mission Gear, ABS brake 등) 그리고 자기헤드, 메모리 디스크, 컴퓨터 부품 등의 끝마무리 작업과 여기에 관련된 Robot 적용분야 및 세정공정 분야에 이르기까지 생산기술의 전분야를 다루게 된다.

일반적으로 버(burr)라 함은 가공후 모서리에 발생하는 원치않는 물체의 돌출된 부분을 일컫는데, 모서리부의 치수변화로써 다음 공정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버퍼런기술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국제인과 학술 심포지엄

가톨릭의대 안과학교실

가톨릭의대 안과학교실(주임교수 김재호)은 10월26일 가톨릭의대 마리아홀에서 「안염증과 안과 최신지견」을 주제로 제2차 가톨릭 국제 안과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워싱턴대학의 페포스교수와 캐플란교수를 비롯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오브라이언교수, 미국 남캘리포니아대학의 게은덕교수, 일본 동경대학의 후지노교수 등 해외의 저명학자와 국내관련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최신연구를 발표하고 첨단정보를 교환했다.

임상분야 위주로 구성되었던 과거의 심포지엄과는 달리 기초영역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어 기초와 임상연구의 새로운 만남의 장으로 꾸며진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안과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5개의 연제발표와, 발표후반부에서는 여러 안질환에 대한 최신지견이 발표되었다.

특히 워싱턴대학의 페포스교수는 과거 치료방법이 없어서 실명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망막색소변성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단순헤르페스 바이러스를 매개체로 이용한 유전자치료를 소개하여 관심을 끌었다. **ST**



◇밀폐형히이트파이프식 집열기를 이용한 고효율 저가 태양열온수기